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 컬럼

케도수정

이번 올림픽공원 집회 전날, 나는 기도하다가 집회장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다. 장로 및 성도들이 열심히 집회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보니 단이 필요이상 너무 높고 넓었다. 40일 작정기도를 했으니 사람들은 물려올 것인데 넓은 단으로 인해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줄어든 셈이었다. 이미 단은 2/3 가량 완성된 상태였다. 그러나 나는 망설이지 않고 결단했다. 그것을 다 뜯고 다시 만들기로. 감사한 것은 내 말에 누구도 얼굴을 찌푸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역시 예수중심교인들은 다르다.

그런데 그 때 옆에 있던 장로가 하는 말, “목사님, 잘 하신 것입니다. 죽기 전에 수술해야죠.” 나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죽은 다음에 ‘수술할 걸...’ 해봐야 소용없듯 다 완성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허물고 다시 하는 게 낫다. 적기, 곧 타이밍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었고 다시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동안 해놓은 수고가 아깝고, 들어간 돈도 아깝고, 수고한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서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 명작을 만들어낼 수 없다. ‘벤허’라는 영화가 왜 불후의 명작이 되었는지 아는가? 시사회를 100번 했기 때문이다. 그 말인즉 100번 수정했다는 말이다. 장인이나 예술가들은 단번에 명작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다. 교정과 수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인정신이 명품, 명작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잘못 가고 있으면 케도를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0.0001도 케도이탈로 인해 얼마나 큰 사고가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생도 케도수정 통해 명품인생으로 태어나는 것, 케도수정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자

금번 집회의 제1주제는 ‘내 백성이 지식 없이 망한다’였다. 여기서 지식이란 함은 곧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말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가난과 저주와 고통 속에 피폐한 삶을 사는 현실이 안타까워 목사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 주제로 복음을 선포하신다. 둘째 날, 목사님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회복을 강력히 촉구하셨다.

“문제가 있을 땐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만 제거하면 문제는 저절로 풀립니다. 이사가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상하고 찢렸으며,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고 있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공생애의 많은 시간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데 할애하셨고, 복음을 전하실 때면 반드시 이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만 이 일을 행하신 게 아니고, 열두 제자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어 내보냈고, 70인의 제자가 귀신을 내쫓고 돌아와 기뻐할 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눅 10:17~20)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부활 후 하늘로 오르기 전, 그를 따르는 무리 앞에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믿는 자의 따르는 표적’(막 16:17~18)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곧 믿는 자의 신분

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속에 오신 성령, 그 성령을 힘입어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이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고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기 때문(막 9:29)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권세 있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 목사요, 이 성경 역시 다 찢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모두가



이초석 목사 은사집회(2018년 11월 28~2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씀은 예수께서 각색 병자들을 고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장면에서 다시 인용됩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이사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을 고쳤느냐면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지 말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아프지 말아야 하건만 왜 아프냐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는데 그 원인이 더러운 귀신 때문이라고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적나라하게 밝혀주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요 1:12).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획득한 권세 있는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화해

신분을 망각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모든 병자들을 단으로 불러올려 일일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이었다.

이 집회를 위해 작정기도로 동참하며 전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헌신 봉사한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은택 목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깨닫고 기도하는 성도들



모든 병자들을 단상으로 불러올려 안수해주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8:23~35)

나는 너에게 조건이 있다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만사 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원인만 제거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무조건(無條件)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입니다. 조건(條件)이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상태나 요소를 말합니다. 즉 조건이란 일을 진행함에 있어 상대에게 요구하고 제시하는 사항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심에 앞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34년을 외쳤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말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게 약속을 안 지키시나요?' 라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조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시행하지 못하고 계신 것일 뿐,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서 대출해주지요? 그러나 아무나 해줄까요? 아닙니다. 대출조건을 구비할 때 해주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성경에는 '~하면', 혹은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네가 조건을 먼저 수행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 '십일조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말3:10~11)는 말씀들이 그 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용서와 사랑이다

'나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뭐가 잘 안 돼요' 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전제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6:12).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게 잘못된 자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4~15). 십자가의 사건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뜻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가 원활하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자연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인통(人通)해야 신통(神通)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싫어서, 우리에게 축복해주기 아까워서 이런 조건을 두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의 죄를 용서해주는 사랑을 베풀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용서하라

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

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회계할 때 일만 달란트, 실로 어마어마한 돈을 갚지 못한 종이 있음을 알고 그 종을 불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조금만 참아주소서. 빠른 시일 내에 다 갚겠습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하도 애원을 하니 이를 불쌍히 여긴 임금이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그 종을 놓아 보냈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 받은 그 종은 신이 나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일백 데나리온, 몇 푼 안 되는 돈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에게 빚을 독촉하며 당장 안 갚는다고 그를 고소하여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만행을 지켜본 동료 가이 사실을 그대로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대노하면서 그 종을 불러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

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나?"며 즉시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수 좀 한 내 가족을, 작은 잘못을 한 내 성도를, 내게 조금 손해를 입힌 내 친구와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우리의 죄를 탕감해주신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웃이, 형제가, 가족이 죄를 지었기로서니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 크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얼마나 어디까지 용서할까요?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

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

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눅17:3~4) 하였고, 마태복음에는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찌니라"(마18:22)며,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5:23~24)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과 먼저 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과 미움이 있거든,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 먼저 푸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18:35).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혹은

시급을 다투는 문제가 있을 때면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기도가 상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이니이까"(사58:3)라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응답이 없는가 하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사58:4)는 말씀에 걸린 겁니다. 곧 금식도 다투지 말고 용서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데 남편이 친구를 데리고 와도 넓은 마음으로 음식도 차려주면서 잘 접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럴 때 시부모님이 오시죠? 그럴 때도 '금식중인데 왜 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사58:5).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통(人通)해야 신통(神通)한다

1992년 메인스타디움 집회를 앞두고 금식할 때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웃과 화해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먼저 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관계가 소원(疏遠)했던 자들, 혹시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은 자들, 그동안 용서 못한 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화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회를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금식하기 전에 용서할 자를 용서해주고, 화해할 자와 화해하세요.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사58:8~9)는 말씀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또한 내 땅도 기를 지게 합시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용서하지 못한 자를 용서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요20:23).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투자는 상대적인 선택의 훈련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잠재적인 투자대상 목록 작성, 둘째 목록에 있는 투자대상의 내재가치 평가, 셋째 내재가치와 비교해서 가격이 어떠한지 판단하는 것, 넷째 각각에 포함된 리스크와 리스크를 포함했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투자후보를 리스트화하는 것입니다. 가능성 있는 투자대상후보를 골라낸 후에는 그 중에서 최고로 싸고 좋은 대상을 선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대비 잠재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이나 비용대비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투자는 상대적인 선택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이로 인해 장래 수익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최고의 투자대상을 찾아야 하지요. 우리가 시장을 바꿀 수 없는 이상, 시장에 참가하고 싶다면 존재하는 여러 가능성 중에서 최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상대적인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탁월한 투자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워드 막스는 이는 대체로 가격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좋은 자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자산을 사느냐'보다 '그 자산에 얼마를 지불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량 자산을 놓고 우리는 매입을 잘

할 수도,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기회를 객관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실수하거나 혹은 좋은 자산과 성공적인 매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투자대상을 탐색하는 이유는 성공적인 매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입을 잘하려면 자산 가격이 가치에 비해 낮고 기대수익이 리스크에 비해 높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가의 자산을 그런 식으로 매입할 수 있을까요? 저가의 자산을 찾으려면 자산이 인기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실제보다 훨씬 나빠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기회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들 중에서 찾을 수 있지요. 모두가 어떤 자산에 호감을 느껴 기꺼이 투자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산의 가격은 이미 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투자를 결정함에도 깊이 분석하여 현명하게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이분법으로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순종과 불순종 중에서 선택하라 하시지만 세상은 삼분법, 사분법도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투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을 선택하는 훈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블랙아웃

정보통신(ICT) 서비스가 일시에 멈추는 이른바 'ICT 블랙아웃'이 지난달 주말 서울 중서북부 일대 한 복판에서 일어났다. 휴대전화는 물론 유선전화, 인터넷 연결의 두절은 한 순간에 우리 일상을 '디지털 석기시대'로 되돌려 버렸다. 스마트폰과 카드결제는 물론 일부 112, 119시스템까지 먹통이 되어 디지털재앙을 맞본 것이다. KT통신망을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이 진료업무에도 차질을 빚었고,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도 멈췄으며, 일대 상점의 카드 단말기와 포스(POS) 시스템의 오류로 소상공인들의 상거래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ICT 블랙아웃'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곧 시행될 5G시대에 이런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지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성경에서도 블랙아웃 되는 경우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동산에서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

었다.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낳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86세였다. 침묵하시다 다시 찾아오셨을 때 아브람의 나이가 99세이다. 현재 중동지역의 불행의 씨앗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아니겠는가?

블랙아웃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땅에서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 및 통신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적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삶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은 말씀생활과 기도로 가능한 것이다. 기억하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영적 자원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하나님의 법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12 지파의 제사장들을 앞세워 여호와와 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의 발이 닿는 곳의 물이 갈리고 끊어져 요단강을 평지 걷듯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다보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물이 넘실대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경우,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리저리 배를 구하려 다니십니까? 도움을 청하러 뱃사람들을 찾아 헤맬까요? 아니면 다리를 놓겠다며 계산을 두드리십니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에 하나님의 궤를 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넘실대는 요단강 같은 세상이 평지처럼 열리게 됩니다.

나의 열정과 의욕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이나 지혜로 다 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신 하나님이 동행해야 험한 길이 열리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와 궤를 옮기려고 할 때 수레를 몰던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옷사라는 사람이 궤를 손으로 붙들다가 죽습니다. 여호와와 궤는 손대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내 열심이나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공의 비법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막3:35).

예수중심편집실



실패의 미덕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은 딸 하나를 낳은 후 2년 만에 이혼했다. 20대 중반부터 가난에 찌든 싱글맘 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이런 상태에선 도저히 딸을 키울 수 없다고 결심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마을 카페에서 우울증과 싸우며 마지막 영혼을 짜내듯 집필한 첫 작품은 출간 즉시 히트를 기록했고 조앤 롤링은 현재 영국 여왕보다 큰 부자가 됐다. 그녀가 몇 년 전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졸업식 축사를 했다.

"여러분이 젊고 재능 있고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버드대 졸업생이란 사실은 곧 실패에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실패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7년 동안 엄청난 실패를 겪었습니다. 결혼에 실패했고 실업자였다 싱글맘, 더 이상 가난하기 어려울 정도였지요. 하지만 실패는 제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줬습니다. 저는 자기기만을 그만두고 제 모든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일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실패가 현실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저는 살아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낡은 타자기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지요. 가장 밑바닥이 제가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준 것입니다. 바닥을 치면 더 이상 두려울 것도 꺼릴 것도 없는 법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일만 있기 때문입니다."

'패배가 곧 실패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2018 한국시리즈 우승팀 SK 김상진 코치다. 통산 122승 100패를 기록한 그는 말한다. "잘하고 이기고도 물론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이겨서 배우는 것은 다음번에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패, 실수해서 배우면 그렇게 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안 해본 것,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 마운드에서의 창의력은 패전에서 나온다. 투수가 패전에 대한 두려움을 떨리하고, 교훈의 기회로 여긴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패배와 실패, 두려워 말자. 그것은 성공을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임택함 목사**

:: 일본에서 온 메시지 ::

:: 귀를 기울이세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여

얼마 전에 친구가 보내온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큰 깨달음을 줘서 함께 나누고자 한다.

결혼 20년 째 되는 부부가 있었는데 매일 같이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 가족들이 잠들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왔고, 부인은 잠옷 바람으로 늘 늦은 시간까지 남편을 기다렸다가 하루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금슬 좋은 부부로 살아왔다. 그 덕분에 남편은 진급도 하고, 가정은 평안했다.

진급이 된 남편은 이제 여유도 생기고 쉬는 날도 생겼다. 어느 날 모처럼 쉬는 날이 된 남편은 늦게까지 폭 자고 일어나 아침을 먹으려고 부엌으로 갔다. 그런데 마침 아내가 집 청소를 하고 있었다. 아내는 험령한 몸매 같은 바지차림에 머리는 자고 일어난 그대로이고 화장기도 없이 걸레를 들고 주방바닥을 기듯이 닦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남편은 많이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늘 깨끗한 차림에 방긋이 웃으며 인사를 하

는 옆집부인 모습이 떠올라 비교가 되며 남편은 순간 화가 나기 시작했다. 남편은 ‘왜 옆집 부인처럼 하지 못하는가’ 생각하며 말은 않고 그냥 모든 것에 화만 내자 아내가 물었지만 남편은 말은 않고 그냥 화만 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결국 시골아낙네 모습으로 걸레를 들고 방을 기는 아내의 모습에 참을 수가 없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남편은 아무리 이유가 뭐냐고 물어도 말을 해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아내는 짐을 챙겨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나가려고 하자 좀 전과는 전혀 다른 아내의 모습에 남편은 깜짝 놀라서 아내를 붙잡으며 “아니 이 사람이? 옆집보다 훨씬 예쁘네? 내가 왜 몰랐지?” 하면서 가방을 가지고 집을 나서는 아내를 말렸다고 한다.

총회장 목사님은 내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면이 아니라 외면, 외모이

기 때문이다. 외모지상주의는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가치를 추락시킬 정도의 방관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매일 아 이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자신을 가꿀 시간과 돈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품위와 품격을 갖추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 남편이 남의 편이 되지 않게 된다.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다. 누구도 내 대신 내 인생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 남편에게 문제점은 아내의 성실함을 보지 못하는데 있다. 어느 여자가 꾸미고 싶지 않을까. 그러나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며 집안을 가꾸는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이 아닐까. 나보다 남편을, 나보다 자식을 생각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남편의 눈이 잘못된 것 아닐까. 남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도 가족은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서로 서로 부족한 면을 보완해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질 것이다.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서 치성을 드리고, 종교의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암송을 하거나 탐독을 하지만 다 헛되고 헛된 일들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상화평 목사

:: 생활 속의 잠언 ::

주님께 집중하는 삶

거의 삼십년 가량의 시간을 크리스천으로 살아왔다. 처음 수년 동안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열병과 흥역을 앓으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첫사랑이 사그라질 무렵에는 엄청난 고통과 환난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잠시 떠나기도 했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온 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늘 자신 있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 구석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시간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세상의 사람들이 잘 찾지 않은 좁은 길에 관하여 생각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기독교인의 인생에 관해서 생각은 했지만, 이 좋은 세상,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무한정인 이 세상을 뒤로하고 오로지 주님 원하시는 좁은 길로의 들어섬은 계속 망설여지기만 했다. 기도시간에 각양의 감언이설로 주님을 기만하는 기도를 드렸고,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에 허덕이는 시간

을 보냈다. 교회를 가는 것도, 기도원을 찾는 것도,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진실로 주님을 향한 마음에 진정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기독교인이라는 허울과 명목으로 행하는 신앙의 생활들이 어느 듯 습관처럼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습관과 신앙은 하늘과 땅차이가 있음을 알면서도 관습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찬송가 한 소절에도 주님의 은혜에 눈물로 감격하던 시절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말씀에 은혜를 받고 행동으로 움직였던 내 영혼의 팔다리는 무디어져만 갔다. 육신의 병은 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지만 영혼의 문둥병은 치료약이 달리 없음을 익히 알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런 모습의 ‘나’를 통하여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나라는 전혀 없었다. 그렇게 번민하고 회개하면서 고민의 시간을 보내는 어느 날, 십 수년 전 유명한 배우에게 마음이 끌려서 집

중했던 시절을 생각해보았다. 밤마다 매일 편지를 썼고, 촬영장에 맞은 음식과 선물을 보냈고, 영화를 개봉할 즈음에는 열정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영화를 홍보했던 시절이 스치듯이 지나갔다. 영화배우를 향한 집중한 관심으로 나는 그와 절친한 벗이 될 수 있었다.

그 시절의 경험을 추억하면서 다시 주님께 매달리려고 한다. 밤마다 간구의 기도를 드릴 것이고, 좋은 것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아낌없이 나눌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자랑하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리하여 여태 이루어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친한 ‘나’를 통해서도 꼭 이루어드리자 한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진실로 주님께서 오라는 좁은 길로 나아가보려 한다. 깨달음과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자유 집사

lovelyactor@naver.com

내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최근 모세의 어머니를 소재로 한 이 찬양을 듣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방금 낳은 핏덩이를 갈대상자에 넣어 보내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을 다는 모르지만, 진정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에 대해 나를 돌아본 찬양이었다. 그러면서 과거 어머니께서 해주신 간증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시절, 주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에 나는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후 기도가 이루어지고,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어떤 장로님 댁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딸이 혼자 먼 타향에 산다고 하니 어머니가 속이 까맣게 타셨나보다. 그래서 울고 불고 기도하다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담당 교역자에게 전화를 하셨단다. “전도사님, 나는 우리 딸이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 “집사님, 현재는 집사님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 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 어머니는 돌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다. 나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지 오래됐고 조장까지 맡고 있었는데 너무 창피하여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고 한다. 이 간증은 지금도 어머니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많이 말씀하신다.

주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속칭하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Adonai), 그리스어로 ‘키리오스’(Kyrios)이며, 주님의 ‘주’자는 주인 주(主)를 사용한다. 그러니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삶을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송현혜 성도

charisma0691@hanmail.net

타루는 시작을 망측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잠언 17장 14절)

대화는 평화의 사신이라
대화하라
올해가 가기 전에!